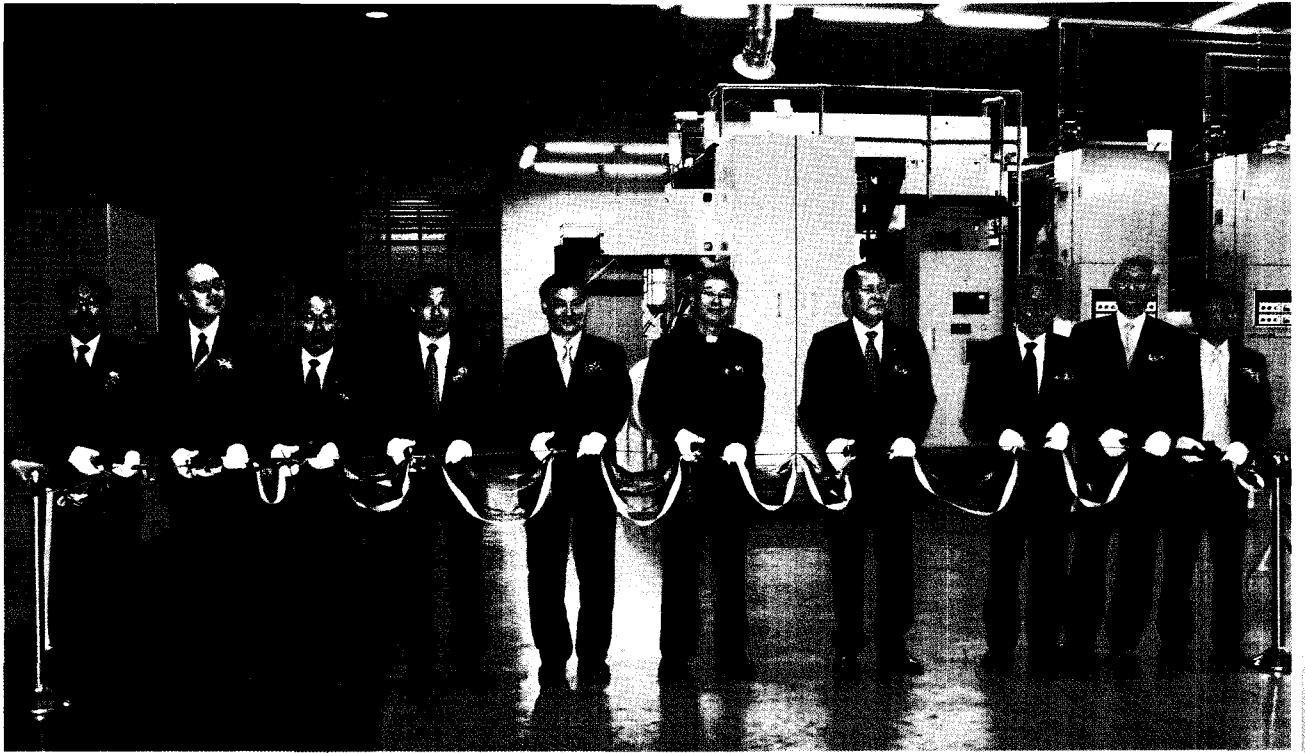


유신당 100주년 기념식

김포에 대규모 공장 신축 오픈



가업 3대째를 이어오고 있는 유신당씨앤씨주식회사(대표이사 류정열)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김포시에 서울공장을 새로이 준공하고 지난 2월 25일 낮 12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산업단지 K-1에서 지역 경제계 인사, 인쇄 및 관련업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0주년 및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을 가진 양촌산업단지 내의 서울공장은 대지 5520평방미터, 건평 4628평방미터의 규모에 32P 접지가 가능한 4×6 전지 양면 8도 윤전기 2대와 4×6 2절 양면 8도 윤전기 1대, CTP(전자)출력기 등 각종 인쇄, 출판 및 디자인관련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신축한 김포시 서울공장은 윤전인쇄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 공장 내 난방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공장 내 천정 높이도 12m 이상 높게 시공해 쾌적한 작업공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윤전기에 지분제거장치, 가슴장치, 자동핀



맞춤장치, 소프트링장치, 로버트 팔 등 최첨단 옵션을 부착하여 최고의 생산성 및 최상의 인쇄품질을 실현하고 있다.

류정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대전공장과 일산공장을 성원해 준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곳 김포공장은 130여억 원을 투자하여 최선의 윤전기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 이어 온 100년, 함께 이어 갈 100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최고(最古)의 인쇄사로, 최상(最上)품질의 인쇄물을 생산하는 인쇄사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회사 측은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서울공장과 대전공장의 연계를 통해 유통업체·건설사분양·학원광고 등의 전단인쇄를 특화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